



부산지방이 25.4°C $<22.9 \sim 29.4^{\circ}\text{C}$ 로 지난달 보다 평균 1°C 정도가 높은것으로 예상되며 강우량을 보면 서울지방이 224.2mm 부산지방이 165mm내외로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한편 의부의 기온과는 달리 계사내부의 기온은 더한층 상승되어 $35 \sim 38^{\circ}\text{C}$ 로 평상시 사료섭취량의 4배에 달하는 음수량을 요하게 되므로 지난달에 지적한 각종사항에 대한 실시와 아울러 미세한 스트레스라도 주는 일 없이 영양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여름철의 계체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력을 요한다.

1. 급수관리의 철저

수분의 역할은 생명체의 체온조절과 소화력의 보조역활, 신진대사작용, 배설작용, 각종 미생물의 대개체 등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또한 수분<음수>내에는 수증의 영양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가장 값

싸게 얻을 수 있는 영양분 보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다. 계체의 60~75% 체량의 65%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체외로의 수분배출이 더욱 많은 여름철이고 보면 급수관리의 시급성은 더욱 요구된다. 참고로 온도상승에 따른 1일 1수당의 사료섭취량과 음수량과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온도($^{\circ}\text{C}$)	사료섭취량(g)	음수량(cc)
18 $^{\circ}\text{C}$	105g	202cc
24 $^{\circ}\text{C}$	92g	206cc
29 $^{\circ}\text{C}$	85g	221cc
35 $^{\circ}\text{C}$	64g	299cc

이상에서 보듯이 온도상승과 동시에 사료섭취량의 저하와 음수량의 증가는 대조적임을 볼 수가 있겠다. 더욱기 지방제나 유색종의 경우는 물론 말사시, 접종시, 이등시, 오후2~4시 폐계도태시에는 더많은 수분공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맑은 일반동물과 달리 위내에는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만큼 음수는 계속 필요시마다 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때의 물의 온도는 $10 \sim 12^{\circ}\text{C}$ 가 됨은 물론 오물이 함유되지 않는 청결수의 사용은 부언 할 필요도 없겠다. 평사에서는 평소보다 2배의 급수기를 확장하고 케이지에서는 급수기의 파손유무를 판찰한 후 부리의 $\frac{1}{2}$ 이 들어갈 수 있는 물높이가 되게 유지시킴이 좋다고 본다. 케이지의 급수기가 새는 곳은 야간을 이용하여 본드나 빼

☆.....☆
8월
☆.....☆

정보남
<한국가금협회 검정소>

기타를 사용하여 새벽까지는 마를 수 있게 조치한다. 급수기는 가급적 이동을 피하고 동일장소에 놓으므로서 이동시의 혼동을 예방한다. 혹자는 급수는 1일 3회로 1회에 15~20분간에 음수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급수만은 결수시의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자유롭게 하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본다.

2. 사료보관

특히 여름철마다 강조하는 것은 사료보관문제이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배합이 될 우수한 사료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사료 보관과정에 결함이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손해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과연 우리 농장의 사료보관창고는 결함이 없었던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바닥에는 복판을 깔고 있는가, 천면과 후면에는 환기창 시설이 되어 있는가, 창고내에는 파습하지 않은가, 창고내에는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가, 너무나 많은 사료를 쌓아 놓지는 않았는가, 사료 구입시는 제조일자가 가까운 것을 사용했는가, 창고내에 동물의 침입은 없었는가, 사료 굽여서는 구입순서대로 굽여시키고 있는가, 등을 우선 해결한 후 사료성분문제라면 기타 기술적인 문제는 사료공장과 의견을 나누어야 되리라 본다.

3. 질병대책

철저한 소독과 살충을 하므로서 각종세균, 병독, 내외부 기생충, 원생동물, 곰팡이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누차 지적했다. 방역의 철저를 기하고 그래서 이달에 만연하기 쉬운 계우, 전염성하리, 류코싸이토준병, 곰팡이성증독, 식중독포도상구균증 <바티리병>, 영양결핍, 내외부기생충등의 질환으로부터 체체를 해방시킬 수가 있다고 본다. 이를 질병에 대한 소개는 지장에 누차 소개되었기에 곰팡이성 증독과 전염성하리증에 대한 설명만 약술코자한다.

곰팡이성증독

이는 사료취급의 불량으로 발생된 유독성의 곰팡이가 호흡기를 통해서 침입하고로서 발생되는데 여름장마철에 특히 다발한다. 곰팡이량의 다소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겠지만 보통 유추시기가 증추시기보다 다발하는 것 같다. 이는 이상호흡음이 특징으로 급성시에는 가쁜 호흡의 연발과 괴성음을 발하며 식욕은 물론 원기가 없이 웅크리고 심하면 경련을 일으키다. 24~48시간내에 폐사하는 수가 많다. 성체시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되며 구토를 하거나 황록색의 변을 배설함이 보통인데 이에 대한 예방은 계사내의 파습을 방지하고 사료의 제조일자가 가까운 것부터 구입할 것과 사료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일단 발생시는 원인을 규명하여 오염물질의 소독과 소각처분을 행한다.

치료는 접단발생시는 를 1L에 요드가리 5~10gr을 음수시키며 개체방법은 AM 0.01gr+10

0cc알콜+10배의 물에 희석해서 매일 50ml 분두에 흡입시킨다. 또는 요드가리용액 5~6mg을 연속 투여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전염성하리증

원인은 바이러스설, 신진대사설, 중독성이라는 학설이 있지만 분명치는 않고 다만 고온다습, 세균병독감열, 기생충내장감열, 부패사료굽여시, 비타민A,E결핍시, 다향의 옅분굽여시 발병되는 것 같다.

이 질병은 일령 청관병, 하절병 등으로 불리우는데 주증은 하리이다.

초기는 수양변을 하루에도 수차례 배설하여 케이지에서 철균에 만연시는 마치 계사내가 물바다를 이루는 것 같다. 이어서 회갈색의 고형변과 난백갈은 점조물을 함유하다가 계판의 암적색, 식욕부진, 수면상태에서 3~4일후에는 급사하는 수도 있다.

이때는 70%이상이 산란을 정지하다가 1개월후에 회복하기도 하는데 2차 감염이 없는 한 폐사율은 5~10%로 보통 1주일이내에 회복이 된다.

이 질병은 전염력이 강하고로 일시에 철균이 만연되고로 예방과 치료에 주의해야 된다.

예방은 AM, TM 200mg/톤 또는 0.05~0.06%의 수용액을 사용하거나 2,000배 유산동액과 4,000배의 중크롬산액, 당밀 2%를 음수굽여시키고 치료는 AM, TM 0.2%의 용해수굽여와 설파제 100~110mg/톤을 투여한다.